

## 깨닫게 해준것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리순혜

나의 생활은 며칠동안에 모든것이 달라졌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먼거리를 다녀야 할 통학길도, 동무들과 인사 나는 복도도, 오르는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3층계단도, 동무와 만든 벽보게시판도 다 못 보게 되었다.

교탁에 서시는 선생님 소리는 못 듣고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던 동무들 소리도, 시간을 알리는 우리 학교 교가의 종소리도 안 들린다.

무거운 학교가방도 청소도구도 저고리도 안 보게 되었다.

학급모임이 끝나자마자 즉각 소조복으로 갈아입고 달려간 중체육실. 오늘은 장단소리도 활기찬 대답소리도 들려오지 않을것이다.

늦게까지 토론하던 시간도, 오늘도 피곤했다고 웃으며 전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없어졌다.

방구석에 둔 학교가방을 보면서 마음은 쓸쓸해지고 화면에서 들려오는 우리 말은 그림기만 한다.

내가 늘 평범하다고만 느끼던 학교생활이 이렇게 내 전부가 되어있는줄은 몰랐다.

항상 곁에 있는 동무들이 지금은 쉽게 보지도 못하며 힘들다, 하기 싫다고 느끼던것들이 그림기까지 하니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이였는가.

일분일초 깎이는 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멈추지 않았는가고 시계를 보면 미워진다.

그래도 내 기가 죽지 않은것은 역경속에서도 동포들에게 힘을 안겨주자고 힘을 쓰는 조청원들의 모습이며 화면속에서 학생을 향하는 선생님모습이 있기때문이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자고 힘쓰는 모습은 나에게 신심을 안겨준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적어도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없는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었다.

밝은 앞날을 위해 동무들과 웃으며 만나는 그날을 위해 그리운 학교를 위해 어렵기는 해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며 눈앞에 그리운 모습을 그린다.